

축구

2014 월드컵
브라질에서 개최된 2014 월드컵 일본 국가대표팀
(사진제공 : 교도통신사)



대부분의 나라에서 풋볼로 알려진 이 스포츠는 일본에서 대학 및 사회인 팀이 있으며 미식 축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샷카(soccer)라고 부른다.

일본의 축구 단체인 일본 축구 연맹(JFA)은 1921년에 설립되었다. 1948년에는 천황배로 알려진 국가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J 리그 프로 축구

일본 축구 대표 팀은 서독의 뒤스부르크에서 데트마르 크라머를 코치로 초빙하여 1960년부터 1963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크라머와 대표 팀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일본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1987년 일본 축구리그(JSL)의 총책임자(현재의 J리그 체어맨)이었던 모리 겐지는 축구 선수들이 프로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JSL은 1988년 축구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듬해 위원회는 프로 리그 설립을 추천하였다.

1991년 1월, 계획을 세운 지 2년 만에 일본 축구 협회 프로 리그의 기초 계획을 발표하였다. 10개 팀이 참가하는 일본프로축구(약칭은JFL)가 시작되었다.

J 리그는 일본축구협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프로 경기들을 계획하고 경기 기록들을 보관한다. 또한, 경기 규정을 확립하고 트레이닝, 선수와 코치, 심판의 등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 텔레비전 방송권 판매와 스폰서쉽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다.

1992년 9월 5일, 일본의 첫 공식 토너먼트인 J 리그 아마자키 나비스코 컵이 시작되었

소년축구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전
일본대표 이하라 마사미 선수의 모습이다.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고 1993년 5월 15일 첫 경기가 열렸다. 팀 수는 1994년에는 12개 팀이었고, 1995년 14개 팀, 1996년 16개 팀, 1997년 17개 팀, 1998년에는 18개 팀으로 증가했다. 1999년부터 J리그는 J1, J2 리그로 2부제가 도입되었다.

출범 당시의 J리그 인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타 선수들에 힘입은 바가 컸다. 브라질의 지코, 잉글랜드의 리네커, 이탈리아의 스킨라치, 구 유고슬라비아의 스토이코비치 등 많은 유명 국가대표선수가 J리그에서 활약했다. 브라질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하여 귀국 후 일본 대표팀의 주장이 된 미우라 가즈요시 또한 J리그 인기를 견인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 후, 지역 밀착을 이념으로 내건 J리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육성하는 등, 각 클럽 단위로 지역에 뿌리를 내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각 지역 서포터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J리그를 통해 일본 선수들의 수준이 향상되어 나카타 히데토시, 나카무라 쉰스케, 혼다 게이스케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도 많아졌다.

비원의 월드컵 출장

축구대회의 세계 최고봉인 FIFA 월드컵 대회의 출전은 스위스 대회(1954년)의 예선전 참가 이래로 일본 축구계의 비원이었다. 미국 대회(1994년)의 아시아 예선에서는 첫출전을 거의 손에 넣었지만 최종전의 추가 시간에 동점 골을 허용해 아쉽게도 물러났다. 이어 프랑스 대회(1998년)에서도 예선 도중에 감독을 교체하는 등 고전이 이어졌지만 마침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어냈다.

2011 여자 월드컵

2011년 일본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은 독일에서 열린 제 6회 월드컵에서 우승하였다.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2002 월드컵

공식적으로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으로 알려진 2002 월드컵은 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월드컵이며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개의 경기장에서 총 32개 팀이 경기를 가졌다. 자국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였다.

2010년 월드컵

일본은 2010년 남아프리카 대회에서 첫 경기인 카메룬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네덜란드 전에서는 졌지만 첫 경기 승리의 기세를 타고 덴마크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역사상 두 번째로 16강 진출을 이루어냈다.

일본 여자 축구의 약진

일본 여성이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70년대에 스포츠 인기가 급증하였다. 그때까지 여자 축구는 실업팀이나 지역팀이 있었지만, 여자축구의 대중화를 시도하는 FIFA의 움직임이 있어 1979년에 일본 여자축구협회가 창설되었다. 그 이듬해에 처음으로 국내 여자 축구대항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승리를 기뻐하는
일본대표선수들의 모습이다.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전이 개최되었다. 1981년에 국가대표팀이 구성되고 1989년에는 여자축구리그가 탄생했다. 1991년 일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중국에서 개최된 FIFA 여자축구 월드컵에 출전하였다. 2011년 일본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은 독일에서 열린 제 6회 월드컵에서 우승하였다. 이 대회에서 일본 국가대표팀 주장 사와 호마레는 최다득점선수와 MVP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 일본 대표팀 주장 사와 호마레 선수는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국제 축구 연맹(FIFA)의 2011년도 연간 표창식에서 여자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J리그 Division 1팀

팀명	홈	가입 연도
콘사도레 삿포로	홋카이도	1998
베갈타 센다이	미야기	1999
가시마 엔틀러스	이바라키	1991
우라와 레드	사이타마	1991
가시와 레이솔	치바	1995
F.C. 도쿄	도쿄	1999
가와사키 프론타레	가나가와	1999
요코하마 F. 마리노스	가나가와	1991
쇼난 벨마레	가나가와	1994
시미즈 S 파르스	시즈오카	1991
주빌로 이와타	시즈오카	1994
나고야 그랑파스	아이치	1991
감바 오사카	오사카	1991
세레소 오사카	오사카	1995
빗셀 고베	효고	1997
산프레체 히로시마	히로시마	1991
사간 도스	사가	1999
V 파렌 나가사키	나가사키	2013

2017년 12월 현재



J리그 시합 (사진제공 : J. LEAGUE PHOTOS)